문 안도 밖도 아닌 곳의 '나'를 찾아서

파사무용단 '혼잣말하는 여자'
동양예술극장 3관 10.10~21일
혜개 스님의 '무문관'에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적이고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온 파사무용단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동양예술극장 3관에서 '혼잣말하는 여자'를 공연한다. 댄스 모노로그 '혼잣말하는 여자'는 파사무용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황미숙의 단독 공연이다. 공연은 한 여자의 혼잣말을 큰 소리로 불러내는, 몸으로 하는 독백이다. 곡진한 삶의 흔들림 속에서 터져 나오는 혼잣말, 공연은 그것을 '나'를 목도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연은 혜개 스님의 〈무문관〉, 즉 '문 없는 문'에서 비롯됐다.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그 길이 천 갈래라, 이 문을 지난다면 홀로 천하를 걸으리라"에 주목했다. 문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오롯이 문 밖도 안도 아닌 곳에 '참 나'로서 있을 수 있음을 춤으로 이야기 한다.

막이 오르고 주인공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통의 부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 후에 찾아드는 무위함에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일상은 균열을 일으킨다.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균형을 잃고 그녀 안의 공허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소리를 지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방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출구는 없고 작은 방 안에 적나라한 '나'만 남는다. 그리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다본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사람, 그들이 벗어놓고 간 허물들 속에서 널뛰는 회한, 기쁨, 아픔, 따뜻했던 순간들이 무대 위에 그려진다. 그러나 허물은 허물일 뿐. 결국 무대 위에는 여자 홀로 남는다. 쌓여있는 옷들을 정리하며 다시 작은 방에 머무는 여자. 여자는 죽은 이를 기리듯 방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본다.

'혼잣말하는 여자'는 문 밖에서 들어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고 손에 닿지 않는, 열 수 없는, 손잡이가 없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결국 문 안의 나와 대면하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이번 공연에서 '혼잣말'은 자신과의 대면이다. 그리고 그 대면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방이라는 공간을 탐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이라는 테제를 갖게 됐다. 이번 공연의 주요한 무대적 이미지이기도 한 '문'은 결국 한 여자를 감싸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그 기억 저편에서 한 여자를 옥죄고 있는 '업'을 상징하면서 여자를 가두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그리고 문을 열어 자신과 대면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도 한다. '혼잣말하는 여자'를 준비함에 있어 주인공은 자신의 삶과 그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문들과 그 문턱에서 아직도 서성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파사무용단의 예술감독 황미숙 무용가의 '혼잣말하는 여자' 리허설 모습.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한 여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한 것들, 오로지 혼자만의 방 안에서 행한 것들, 가슴안의 이야기들을 춤과 대사, 현대무용의 즉흥성과 다양한 표현들로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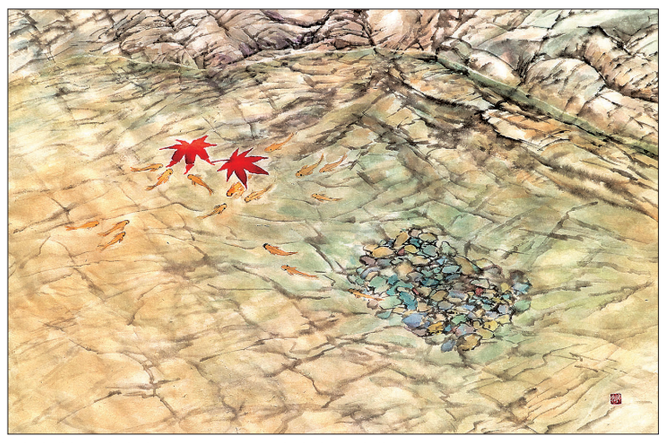
파사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안무가이자 춤꾼인 현대무용가 황미숙은 2005년 서울무용제 대상, 2006년 올해의 예술가상과 안무상, 2008년 이사도라 예술상, 2017년 제5회 김화숙무용교육자연구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버려야 할 것들', '붓다, 일곱걸음의 꽃', '파사, 소맷깃을 날리다', '노랑 달팽이',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 '숭어의 하늘' 등이 있다.

물이 빚는 소리 없는 드라마

한경혜 개인전 '물 만난 세계'
운현궁 기획전시실 10.2~10

물속의 풍경을 수묵으로 그려온 한혜경 화가가 열 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체투지〉의 저자로도 유명한 한경혜 화가의 '물 만난 세계' 전이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운현궁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물 만난 세계에 살고 있다.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거대한 군중처럼 모일 때에는 두려움 같은 위엄을 보인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생명이라는 삶에 관여할 때 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심장박동의 정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경혜作, 안식처 48.5×73.5㎝ 한지 수묵담채.

한 작가는 우리도 늘 볼 수 있는 물속 풍경에서 경이로움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이번 작품에서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계절의 영역 여행을 한다. 그림은 보여주는 감성이다. 시각적인 언어로 눈빛 대화를 한다. 한경혜의 눈빛은 물의 드라마가 된다. 한경혜의 '물 만난 세계'는 서양의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그녀의 수묵이 또 다른 암호로 써내려가는 물속 드라마다.

한경혜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2년 '물항아리전'을 시작으로 2005년 첫 번째 개인전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시작으로 아홉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박재완 기자

국화 핀 山寺서 열리는 '생명나눔' 한마당

10월 6일, 불암사서 토크콘서트 및 문화공연

가을마다 열리는 '생명나눔 산사음악회'가 1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행사로 돌아왔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6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서 '제10회 불암사 산사음악회와 보현 스님의 행복 토크콘서트'를 연다. 산사음악회는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 · 조직 기능 희망등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왔다.

행사는 식전행사, 본 행사, 토크콘서트,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식전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인 소천 이장학 소리꾼을 시작으로, 불암사 합창단 등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이어 일면장학금과 환자치료비 전달식, 치료비지원 홍보증서 수여 등 본 행사와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유튜브채널 '부처님마을' 운영, 저서 〈카르마 100일 행복체크카드〉 등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보현 스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스님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행복을 주제로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나면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현미, 홍진영, 써니힐 등도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정취를 더한다. 이밖에도 불암사 국화축제, 환자후원금을 위한 바자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면 스님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만나는 산사 가을축제에 불자, 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착 한 가 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